

■ 컴퓨터의 수명

'컴퓨터 수명이 다됐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사용을 많이 해서 마모된 상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모되는 상태는 정기유지보수 과정에서 계속 보수되도록 되어있으니 수명이 다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사용기간이 아주 오래된 상태(노후)' 글썽, 아주 오래 돼서 녹이 슬고 배선들이 삭은 상태여서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나 계속 가동중인 기계라면 정기유지보수 과정에서 그렇게 될수는 없고, 그렇다면 컴퓨터 수명이 다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일까.

'이제는 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떤 일을 대상으로 그일을 담당해온 컴퓨터의 능력한계를 넘어 그 일이 변화된 상태로서 그 일에 대한 컴퓨터의 수명이 다됐다고는 말할수는 있으나 컴퓨터 자체의 수명이 다된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 기계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능률대비비용면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경우는 Cost Performance가 높은 새로운 컴퓨터의 탄생이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기존 컴퓨터 보다는 새로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능률대비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컴퓨터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례일 것이다.



洪賢杓
순천대학교 국장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용 부품이나 유지보수서비스가 단절되어 더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라고 할 경우는 컴퓨터 생산 및 공급자측에서 일으키는 상태로서 사용자 측에 가장 많은 불만을 줌은 물론 자원을 낭비하는 좋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동기는 새로운 상품의 판매전략이나 판매이윤 확대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단절하는 경우 또는 외국상품이나 기술도입선의 잘못 선택, 국내 수요판단의 잘못등에서 부득이 공급이나 서비스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컴퓨터 수명은 컴퓨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탄생후에 버려지는 컴퓨터의 운명에서 결정될 뿐이다.